



2019년 전북대학교동창회 대의원대회가 4월28일 오후 2시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예산 심의에 이어 임원 선출이 있었다.



제38대 동창회장으로 추대된 이용규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위원장 김영)으로부터 당선증과 함께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제38대 총동창회 대의원회

이용규 회장 재추대

전북대학교 제38대 총동창회가 4월28일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대의원회를 갖고 힘차게 뜻을 올렸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이용규 37대 동창회장이 38대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동문 친선도모와 모교육성지원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한 38대 동창회는 앞으로 2년간 동창회 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한편, 동문회관 신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창회는 회비 자동이체제도(CMS)를 추진하고, 회관신축을 위해 건축사·법률가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이용규회장은 회장 수락연설을 통해 “동문회의 다양한 사업들은 결국 우리 자녀를 위하고, 멀리는 지역발전을 꾀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뜻이 아무리 좋다해도,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동창회의 과업에 동문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동창록 경과보고에 이어 지난해 결산과 올 예산 심의도 이뤄졌다.

“동문 역량 결집, 동창회관 건립 추진”

38대 동창회장 수락문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리고 앞으로도 천년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 전북대학교의 제37대 총동창회에 이어 38대 회장직까지 맡게 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2년간을 대과없이 마무리한 점을 받아주시어 연이어 동창회 살림을 맡겨주신 선·후배 동문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동문간 친목도모와 모교 육성

지원을 위해 38대 동창회에서는 먼저, 동창회의 재정을 굳건히 세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동문님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비 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수 동문들이 동창회 재정자립에 참여한 가운데, 우리 동창회 살림이 튼실해지면 동창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노송동에 우리 장학재단 건물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건물을 교내에 번듯하게 건립해 동문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농촌봉사활동에도 함께 나서는 등 재학생들과의 연결고리도 튼튼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은 결국 우리 자녀를 위하고, 멀리는 지역발전을 꾀하는 일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뜻이 아무리 좋다해도, 혼자서는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창회와 지역 사회를 위한 과업에 동문님들의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8대동창회장 취임식

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18시 30분

장소 : 모교 진수당가인홀

제1차 상임이사회

일시 : 2019년 7월 12일(금) 18시

장소 : 모교 진수당가인홀

이번호 주요기사

- 02 단대 회장·부회장단
- 03 이용규 총동창회장 특강요지
- 04 김동원 모교 총장 인터뷰
- 05-07 동창회 소식
- 08-09 동문 동정
- 10 자랑스러운 동문
- 11 모교 소식
- 12 모교 소식
- 13 동문 칼럼/최영미·조지훈

동창록에 자신의 정보가 게재되기를 희망하는 동문들은 아래 사항을 기재해 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총동창회 동창록발간위원회 이메일: namebook@jbnu.ac.kr

알려주실 내용: 이름, 출신 단과대학, 학과, 입학/졸업연도, 휴대폰, 회사명, 직책, 회사전화, 집주소, 집전화, e mail.

제38대 총동창회 단과대학 회장



수석부회장 이용길
농공학과 78/85
(주)진모터스 대표



간호대 김현옥
간호 84/88
전북대학교 간호대 교수



공대 김학용
섬유공학 77/81
전북대학교 공대 교수



농대 이규완
임학 78/85
삼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법대 박종덕
법학과 80/88
대성학원 원장



사범대 이원형
수학교육 86/90
산외중학교 교장



사회대 이현웅
행정 81/85
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상대 황방원
회계 80/87
(주)에이텍무역 대표



생활대 최경은
가정교육 82/86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수의대 콕택훈
수의학 66/70
(주)동우 팜테이블



예술대 조광수
산업디자인 93/99
전북대학교 예술대 부교수



의대 김기원
의학 75/81
골든카운티요양병원 원장



인문대 김봉섭
철학 79/83
(주)남산산업 대표



자연대 소준soon
생물학 76/80
우석대학교 교수



치대 이정직
치의학 82/88
이치과의원 원장



환생대 (약산대) 박종길
수의축산 65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제38대 총동창회장 부회장 명단 (가나다순)

이름	단과대학	현 직위	이름	단과대학	현 직위	이름	단과대학	현 직위
이용길	농공학78/85	(주)진모터스 대표	박열해	수의69/73	박동물병원 원장	이일순	미술(서양화)90/94	전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강의전담교수
강신길	토목공학79/86	신신토건(주) 대표	백동화	행정84/90	전북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지사장	이재송	교육81/8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고양수	토목공학78/85	대림산업 고문	백부현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회장	이지원	경영87/91	전인석유(주) 대표이사
국주영은	철학86/91	전라북도의회 의원(도의원)	백성일	정치외교75/80	전북일보 부사장	이진일	경제81/88	(우)한백중합건설 대표이사
김경구	경영대학원(회계)92/94	군산시의회 의장	서춘수	회계81/88	신한은행 전주지역단장	이창봉	토목83/90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처장
김광휘	행정85/92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손정태	법학85/90	전주상그릴라CC 대표이사	이현웅	행정81/85	전전북도청 도민안전실장
김금옥	국어국문84/88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송영석	환경공학89/94	(주)동성정공 대표	이흥래	정치외교76/80	새만금 개발공사 이사
김동환	대학원(법학)01/04	대전특허법원 사무국장(이사관)	신영대	경영85/90	(사)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	임정수	경영82/89	NH 전북지역 본부장
김동훈	경영85/89	(유)지리산 한지 대표	신창범	의학79/85	미르아동병원 대표원장	장기철	정치외교76/80	(사)재경 전라북도민회 상임부회장
김석우	법학과82/86	광주지검 중경단 단장	심영섭	농업경제76/80	(주)부자&우림 그룹 회장	장지영	토목87/96	롯데건설 토목공사부부장 상무
김수태	법학92/00	변호사	엄효순	가정교육75/79	송동중학교 교장 퇴직	전병찬	전산통계85/90	전북은행 부행장
김순원	영어영문78/82	전)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오철기	일반대학원 박사2/15	서전 컴퍼니 대표	전의현	건축공학94/00	(유)서도중합건설 대표이사
김신영	영어영문89/93	t broad 사장	원경익	역학95/01	(유)원진알미늄 대표	전이현	회계86/93	정진회계법인
김영기	국어국문83/88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위병기	경영84/88	전북일보 국장	정경희	사회학과82/86	대광단열 대표
김영량	체육교육78/82	(주)우미 대표	유재도	법학82/89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정영택	의학80/87	온누리안과병원 원장
김용찬	토목공학91/98	대한건설사업(주) 대표이사	윤철중	경제66/70	(유)한성 대표	정재규	법학83/87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덕	회계85/93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	이강수	토목85/89	대림산업	정진숙	생물82/86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장근	경영대학원(경영마케팅)00/02	NH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장	이경옥	법학81/85	전) 안전행정부 차관	조춘신	회계80/84	(유)미도관리공사 대표이사
김정하	무용학88/92	전북대학교 강사	이귀재	농생물82/86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	조화림	불어불문82/86	전북대학교 교수
김종태	건축공학82/89	(유)건축사사무소 에이치건축 대표	이대갑	회계80/84	공인회계사	진상섭	경영대학원 (경영석사)	수협은행 전북지역금융본부 본부장
김춘근	건축공학80/87	(주)게도 대표이사	이동규	경제81/85	미래에셋대우 고문	진성준	법학85/89	전)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
김태중	경제80/87	전북도민일보 기획사업논설위원	이병렬	정치외교75/80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천호성	사회교육84/88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학원	대학원(농학)박사13/16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어촌계획팀	이보원	경영81/88	동문인문인화장	최백렬	무역79/83	전북대 교무처 처장
김현진	생물86/90	지니어스대표	이성원	영어영문82/89	TBN 전북교통방송 본부장	최영미	생활대77/81	전주제일고등학교 교장
문성기	의학85/92	전주내과	이소열	농공학과84/91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최형재	경제82/89	민주평화연구원 대표
문성제	대학원토목공학 11	AR콘크리트 대표	이영송	국어교육86/90	전주중학교 교장	하대성	물리82/89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 정책실장
민선식	법학93/01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장	이원택	화학공업87/98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하재관	일반대학원 박사	(주)미래약품 대표
박병남	최고경영자과정	ACE회장(고공회장)	이은희	음악80/84	전북대 교수	홍요셉	법학82/86	변호사홍요셉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수영	수학87/91	우리은행 서신지점장	이인경	사학86/90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교육중)/총경	황승수	의학86/92	신세계정형외과 원장

농생명과 첨단소재기반, 기술로 여는 전라북도의 미래 !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여러분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연계 ▶ 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 ▶ 기술금융”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 및 일자리창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연구소기업 문의 063-905-9753 특구육성사업 문의 063-905-9752 첨단기술기업 문의 063-905-9743 홈페이지 jb.innopolis.or.kr



“성공한 사람들은 열 번 잘 못해 주었어도 한 번 잘해주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총동창회 이용규회장은 5월20일 학술문화회관에서 250여명의 후배들에게 특강을 실시했다. 학생들로 자리가 가득 찼던 이날 강의 주제는 ‘길을 찾는 청춘들에게’.

이회장은 고대 역사에서부터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의 사업트렌드까지 폭 넓게 강의를 펼쳐 후배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대학에 입학하면 ‘꿈’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2가지 갈래가 있다. 하나는 철학적인 문제이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분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직업의 문제다. 오늘 강의는 실질적인 분야에 대해 말하겠다.

역사에서 본 흠수저와 금수저

요사이 ‘금수저’ ‘흠수저’라는 말이 있다. 혹시라도 가정 여건이 좋지않더라도 주저앉을 수는 없다. 역사를 보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크게 성공해 후세에 이름을 날린 인물도 있고, 좋은 환경에서도 성공을 못한 사람도 있다.

알렉산드로스(B.C. 356~B.C. 323)의 예를 보자.

어머니가 변방 출신이었던 출신의 한계를 깨고,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와 한 판 벌여 유럽과 서아시아 일대를 한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한니발(B.C. 247~B.C. 183)은 발상을 전환해서 크게 성공했던 인물이다. 그는 기원전 218년에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로 진격했다.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즈칸(1162~1227)도 9세 때 이웃 타타르 부족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온갖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고 몽골 제국의 왕인 칸의 자리에 올랐다.

전쟁의 과정에서 인류 문명의 교류

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향료를, 한니발은 와인을 전파시켰다. 이 외에도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커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후추가 유럽에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새로운 상품이 퍼지면서 부(富)도 이동했다. 흥망성쇠가 뒤따라 이어졌다.

직업선택을 위한 트렌드 알기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직업 선택에 대해 알아보자. 직업을 선택하는 첫 실마리는 ‘트렌드’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가까운 부모나 형제 친척 등 가족이 알려줄 수도 있다.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렌드’를 알기 위해 근대화 이후의 세계 경제 흐름을 보자

먼저, 1780년대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1차 산업 혁명기는 시작됐다. 1870년대 2차 산업혁명기는 전기와 전동기가 생산되면서 시작됐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부터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일어났다.

2010년대 들어서는 여러 기기가 지능화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며 형성된 가상공간이 실제공간과 결합하며, 지능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플랫폼이 출현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능동적으로 생산에 관여하며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富)를 이루는 기준을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보면 증기기관 → 전기와 전동기 → 반도체 및 컴퓨터로 이동했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공간 출현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모두들 예상하고 있다. 어떤 분야의 일을 할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내 일을 찾아 성공한 젊은이들

뜰에 박힌 일이나, 부속물에 불과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거나, 트렌드를 찾아내서 한 우물을 파다보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

20대에 이미 사장이 된 젊은이들의 사례를 소개하자.

군의원 강민성씨(25). 그는 주사기로 맞던 포도당 수액(링거)을 입으로 섭취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자세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 열 번 잘 못해주었어도, 한 번 잘해주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열 번 잘해 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것을 오래도록 생각하고 있더라. 결국 고마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

김동원 모교 총장 인터뷰

마에스트로 김동원, 오케스트라 ‘전북대’를 지휘하다

“대학 조직은 대규모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닮아 있다.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을 대형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가 총장이 되겠다.”

전북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제18대 김동원 총장이 취임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 악화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학에 어떤 새바람을 불어넣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분권과 공감, 융합을 대학 운영의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효과적인 분권을 위해 학칙이나 규정을 제·개정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산과 권한을 위임해 교수회, 단과대학 등 각 기관이 자치와 자율을 기반으로 책임 행정을 하도록 하고, 학장 선출 방식도 단과대학 구성원이 선출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형태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여러 폐단을 없애고 총장이 4년 간 대학 운영에 전념하도록 단임제로 총장 선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 전북대 제 18대 총장에 취임하셨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지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선거였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전북대의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담겼나?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이다. ‘알찬 대학’에는 우수 학생 유치와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내실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따뜻한 동행’은 분권과 공감, 융합 교육으로 대학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특히 분권형 대학운동을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과도한 중앙 집중형 행정 체계를 과감히 벗어나 자율형 행정 체계를 구축

해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한다는 것이 분권형 대학운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칙이나 규정의 제(개)정을 통해 권한을 단과대학이나 학과 중심으로 예산과 권한을 대폭 이전하고, 경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 운영 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단과대학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장 선출 방식도 단과대학 구성원이 민주적인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형태로 바꿀 것이다. 분권이 되면 민주주의 원리가 자연스레 학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스며들어 대학 전체를 민주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우수학생 유치도 강조하셨는데.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입학에서부터 학부, 대학원, 취업이라는 일련의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우수 학생을 유치해 융·복합이 살아있는 교양교육과 내실 있는 전공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대학원에 진학시키거나 우수한 기업에 취업시킨다면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까지 견인할 수 있는 밑바탕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

▶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나?

지역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기업이 파트너로 공동 참여하는 것이다. 즉,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처럼 삼성, 엘지, 기아, SK 등 대기업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지역대학의 교육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지역 대학의 부지 안에 자동차융합교육관(가칭)을 설치하고,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센서, 차세대 에너지 등과 관련한 학부특화 교육과정, 실무 석·박사과정 등을 개설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재능있는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다.

지역의 WC기업 혹은 강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기업의 유보금을 전문 인력양성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기꺼이 기부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세제지원과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은 당연히 뒤따라야한다.



▶ 고전읽기를 매우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전읽기 인증제’는 무엇인가?

미국 시카고 대학은 1929년 제5대 총장인 로버트 허킨스가 학생들에게 고전 100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게 하는 ‘시카고 플랜’을 도입했다.

처음엔 반발했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하고 토론을 했으며,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찾았다. 현재 시카고 대학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8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대학 역시 이같은 ‘시카고 플랜’을 도입하려한다. 인문사회계열은 50권 이상, 이공계열은 25권 이상의 고전을 읽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책의 권 수를 정하긴 했지만 책을 읽는 길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 이러한 고전읽기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나?

우리 학생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융·복합이 중요시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뿐 아니라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도 책을 통해 기본 소양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공계 학생이라고 해서 글을 쓸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안된다. 스스로가 가진 생각들을 조리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책이나 사설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 학생들에게 첫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으셨다.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가?

학생 지원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출발이다. 국립대 최상위권의 학습 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우선 학사제도는 학생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수강신청 등에서 스마트 학사행정을 도입하고, 교육과정에서 학생과 산업체의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할 생각이다. 교내 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도 확대한다.

또한 첨단 강의실과 화장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스포츠 콤플렉스 및 운동시설, 학생회실 및 동아리방 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 직업진로지도와 취업기업 매칭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활발한 해외 교환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해외 과견과 봉사활동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제교류부 기능과 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질적인 성장과 권한의 분권을 통해 다양성이 살아 있는 전북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획기적인 변혁보다는 점층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외형에 집중하기보다 내실에 충실하겠다.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제21회 동문대상 시상식 김환진·심영섭 동문 수상



심영섭



김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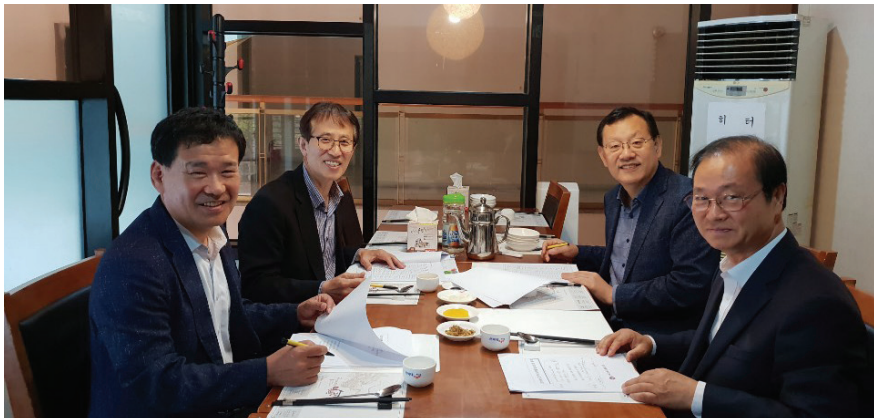
제21회 동문대상 시상식이 2월19일 모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수상은 심영섭동문(63·농업경제학 76·(주)부자&우림그룹회장)과 김환진동문(66·농과대학 71·미국 뉴욕동문회장)이 받았다.

우림건설로 주택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심영섭동문은 모교 우림관을 완전히 개·보수해 후배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림관은 현재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1982년 도미(渡美)한 김환진동문은 90년대초 당시 유아무야했던 뉴욕동문회를 재건한데 이어, 2012년에는 그간 후배의 재미(在美)지역 활동에 도움을 준 공로가 알려지면서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2019 전북대동창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2018 전북대동창회 친선골프대회가 지난해 9월9일 전주CC에서 60여팀의 골퍼와 관계 동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참가 동문들에게 다양한 상품과 경품이 주어지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여흥이 이어졌다.



제21회 동문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35~36대 동창회장·변호사)가 지난해 11월30일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심영섭·김환진 두 동문을 동문대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이용규 총동창회장은 지난해 7월 재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순창 현장을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2019 언론인상 시상식 개최 전북대 언론인회



이보원 회장

우리대학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전북대학교 언론인회(회장 이보원)가 3월 26일 진수당 가인홀에서 언론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회장은 "전북의 미래는 우리 전북대 언론인과 대학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모교가 안으로는 웅골차게, 밖으로는 힘차게 뻗어나아갈 수 있도록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김동원 총장과 보직교수들을 비롯해 이보원 언론인회장, 이용규 총동창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국회 김광수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등을 비롯한 신문 및 방송, 통신사 소속 언론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찬구



김한광

전북대 언론인상에 강찬구·김한광 동문

전북대언론인회(회장 이보원)가 정론직필을 실천해 온 동문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2019년 전북대언론인상에 강찬구 전북포스트 발행인 겸 편집인과 김한광 전주MBC 부국장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대학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공로상 수상자로 강인석 전북

일보 편집국장과 이종휴 전주MBC 보도국장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오랜 시간 언론에 몸담으며 정론직필을 실천하고, 전북대 동문 언론인으로서 '자유'와 '정의', '창조'라는 모교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강인석



이종휴





3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7일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보등록요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었다.



가을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해 12월17일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동창회 장학재단 장학생 21명과 정병하(34대 동창회장·부산 동원기업 대표) 장학금 12명, 문헌정보학과 장학생 1명 등 모두 34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고문단 간담회가 지난해 7월 성미당에서 열렸다. 동창회 현안 등에 대한 숙의가 이루어진 이날, 동창회 제작현황과 가을 골프대회 등에 대한 업무 보고도 이루어졌다.

동창록 발간

인명편 2128쪽, 직업/색인편 880쪽 등 3,0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동창록이 발간됐다. 또한 개교 70년의 역사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으로 앞으로는 동창록 발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마지막 동창록 발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절찬리 판매중으로 동문들의 연



락처를 알고 싶은 분은 동창회 사무국 (063 270 4658)으로 구입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역 동창회(회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6월 월례회가 13일 수송동 에이비페에서 김동원 모교 총장과 보직교수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동문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경구회장은 “최고의 명문대 출신답게 상생하는 동문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동원총장은 오식도 새만금 캠퍼스를 소개한 후, “군산지역 발전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일 개최된 제2차 상임이사회에 김동원 총장당선자가 참석해 동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집안도 자녀가 잘 되야 희망이 있다”며 “학교도 학생들이 앞날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
변산에
반가
도다

모항해수욕장

채석강 	내소사
새만금홍보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개암사 	수성당
직소폭포 	누에타운
2019 변산 파티워크 FESTIVAL 7월말 ~ 8월초 변산해수욕장 일원	
위도 그섬도치섬 단별아래 8월말 ~ 9월초 위도 일원	
부안군 관광안내 콜센터 : (063)581-5114, (063)584-2114	

‘서양 근세초의 새로운 모습’ 발간



이규하 고문(1964년 사학과 졸)이 '서양 근세초의 새로운 모습'(신서원)을 펴냈다. 이 책은 복잡다단한 사건으로 점철된 16~17세기 근세 초 유럽의 역사를 5부 300쪽에 걸쳐 다뤘으며, 이규하 전북대 명예교수가 33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강의하고 연구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제7대 전북요트협회 회장 취임



권익현 동문(1986년 사학과 졸)이 5월 21일 제7대 전북요트협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전주르윈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권 동문은 "전북은 548km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있어 해양자원이 매우 우수하다"며, "부안군청 요트클럽팀 선수들을 비롯, 유소년 유망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동문은 제8·9대 전북도의회 의원 등을 거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제45대 부안군수로 당선됐다.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선임



전대진 동문(1980년 화학공학과 졸)이 지난 2월 14일 금호타이어 정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전 동문은 금호타이어에서 30여년간 일하며 연구·영업·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업계 전문가라는 점에서 전문경영인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1984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전 동문은 수석연구원과 한국생산본부장, 중국생산기술본부장(전무), 생산기술본부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제15회 채만식문학상 수상



이선구 동문(1980년 의학과 졸)이 지난해 12월, 군산 출신의 소설가 백릉 채만식 선생(1902~1950)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5회 채만식 문학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이 동문의 소설 '아담의 추억'이다. 그는 지난 2007년 단편소설 '거울'로 등단했으며 제1회 계간문예 소설문학상(2011), 제1회 아시아황금사자문학상(2012), 대한민국디지털작가상(2012), 제2회 박종화문학상(2016) 등을 받았다.

전북대 교학 부총장에



김선희 동문(1980년 의학과 졸)이 지난 3월 18일 모교 교학부총장에 임명됐다. 교학부총장으로 교무와 학생, 입학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 김선희 동문은 지난 1986년부터 모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해 오며, 의과학연구소장, 보건대학원장, 의과대학장, 산학협력단 21세기 의과학인력양성사업단장, 대학본부 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세번째 시집 '詩את을 심고' 출간



안정근 동문(1982년 영어영문학과 졸)이 지난 4월 시집 '詩את을 심고'(문예원)를 펴냈다. 담백하고 순수한 시의 언어로 다양한 감정과 일상을 표현하고 있는 안 동문이 '주머니에 별 하나'(2015년)와 '별의 딸'(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낸 시집이다. 모교 교수(영어영문학과)로 재직 중인 안 동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자신의 시적 세계의 시작을 정갈한 시어로 되짚었다. 그 시작을 시인은 작품에서 '詩את'이라 칭했다. 안 동문은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유학해 1987년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새농민 전북도회장 취임



이기성 동문(1982년 원예학과 졸)이 3월 7일 제10대 한국새농민 전북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농협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임기는 3년이다. (사)한국새농민회는 농협에서 자립·과·학·협동 정신을 실천하는 최우수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새농민상을 수상한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 동문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한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을 육성하기 위해 새농민 회원들의 농장을 현장교육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취임



남해경 동문(1982년 건축공학과 졸)이 지난 3월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1998년에 창립된 한국농촌건축학회는 우리나라 농촌 건축을 대표하는 학회다. 모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남 동문은 국가건축정책위원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대한건축학회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순철 동문(1983년 경제학과 졸)이 지난 2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행정고시 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동문은 경제기획원, 산업자원부 수출과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및 차장을 거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촉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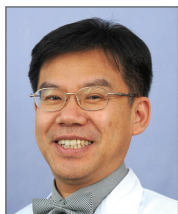
김현숙 동문(1983년 건축공학과 졸)이 지난 2월 20일 제3대 새만금개발청장에 취임했다. 모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온 김 동문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건축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동문은 새만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로 새만금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최웅범 동문(1985년 정치외교학과 졸)이 지난 3월 22일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임명됐다. 최 동문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3월 25일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최 동문은 전주교과와 모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제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장·조직실 지식제도과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파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조직정책관 등을 지냈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장에



김선준 동문(1986년 의학과 졸)이 지난 2월 전북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 31일까지다.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 동문은 "지역사회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난 2013년 6월 문을 열었다.

전북대 대외협력 부총장에



이귀재 동문(1986년 농생물학과 졸)이 지난 3월 18일 모교 대외협력 부총장에 임명됐다. 정·재계 등 두터운 대외 인맥과 학내 중책을 두루 맡아온 이 동문은 지난 1999년부터 모교 교수(생명공학부)로 재직하며 학생처 부처장과 종합인력개발원장, 취업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취임



김지혜 동문(1987년 생물학과 졸)이 지난 1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8대 전북지회장에 취임했다. 티앤제이건설 대표이사인 김 동문은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999년 출범한 전북지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며 "그간의 양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차별화된 여성 경제인 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전북도지사 표창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읍아산병원 제10대 병원장



서재석 동문(1987년 의학과 졸)이 지난 1월 정읍아산병원 제10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서 동문은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동문은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읍아산병원 진료부장, 응급실장, 인공신장실장, 내과과장 등을 역임했다.

구강보건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김재곤 동문(1987년 치의학과 졸)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 동문은 활발한 임상연구와 진료 활동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 동문은 전북대 치과병원 진료처장, 대한소아치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병원 소아치과장, 대한소아치과학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첫 여성 총경 승진



이인영 동문(1990년 사학과 졸)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 동문은 1945년 전북경찰청 창설 이후 처음으로 배출된 여성 총경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다. 임실 출신인 이 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1990년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전주 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 계장, 여성보호계장 등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 취임



정병진 동문(1990년 독어독문학과 졸)이 지난 5월 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에 취임했다. 정 동문은 남원 출신으로 모교를 졸업하고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과 고용정책실을 거쳤으며, 서울지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관, 서울 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제74대 고창경찰서장에



박정환 동문(1991년 독어독문학과 졸)이 지난 1월 14일 제74대 고창경찰서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취임사에서 “경찰의 법집행은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동문은 경찰간부 후보생(44기) 출신으로 전북경찰청 치안지도관,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기업법학회장 취임



송양호 동문(1991년 법학과 졸)이 지난 3월 한국기업법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기업법학회는 상법 중 회사법, 회사 관련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회로 학계와 법조 실무계, 회사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학회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송 동문은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전북CBS 보도제작국장



도상진 동문(1992년 중어중문학과 졸)이 지난 4월 1일 전북CBS 보도제작국장에 임명됐다. 도 동문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제일고와 모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전북CBS에 입사했다. 그는 “언론의 사명은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전하고,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약자를 감싸 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7대 진안경찰서장 취임



이연재 동문(1992년 재료공학과 졸)이 지난 1월 14일 제67대 진안경찰서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취임사에서 “경찰의 존재 이유는 주민 안전이다. 이를 위해 진안 경찰은 경찰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공감 받는 치안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동문은 경찰간부 후보생(41기) 출신으로 서울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장, 경찰청 보안 1·2계장,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68대 익산경찰서장에



박현수 동문(1994년 사법학과 졸)이 지난 1월 14일 제68대 익산경찰서장에 취임했다. 박 동문은 이날 취임식에서 “먼저 낮추며 직원들을 섬겨 그 분들이 진짜 주인인 시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이리고등학교와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44기)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순창·고창 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유충종 동문(1996년 정치외교학과 졸)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유 동문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모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를 통해 정당에 발을 들여 놓은 후 더불어민주당 조직국과 원내대표 비서실을 거쳐 직능국장, 전북도당 사무처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중앙당 을지원 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송용섭 동문(1996년 공법학과 졸)이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명됐다.

송 동문은 모교 법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국방부 법무관 리실 법제팀, 국방부 감사관실 회계 감사담당관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실을 거쳐 방위사업청 사업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을 역임했다.

고창-서울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



유기상 동문(2016 대학원 사학과, 고창군수)은 지난 5월 22일 고창군과 서울시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서울시 직영상설매장인 '상생사회'에 고창 복분자와 땅콩, 죽염업체들이 입점, 지역산품을 판매한 바 있다.

제9기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 위촉



허광무 동문(1997년 사법학과 졸)이 지난 3월 제9기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모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허 동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건설 관련 법률에 대해 입법자문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허 동문은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경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등의 부동산정책 자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국회 입법지원단 위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취임



황기석 동문(1997년 공법학과 졸)이 지난 2월 1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황 동문은 고창 출신으로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5년 소방령 경력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익산소방서장,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중법학회 공로상 수상



강문정 동문(2006년 법과대학 졸)이 지난 2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9년 한중법학회 학술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모교 교수(공공인재학부)로 재직 중인 강 동문은 2017년부터 한중법학회 편집이사로 재임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중국법 연구’ 발간을 통해 학술지의 수준을 높이고 한·중 학술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동문은 국내외 학회에서 한·중 FTA를 비롯한 중국 관련 통상법제 논문을 활발히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당선



신보라 동문(2006년 교육학과 졸)이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신 동문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40.4%(5만5천86표)를 득표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신 동문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청년 몫 비례대표로 영입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문학청년, 5·18 실상 알고 가슴 뜨거운 정치인으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진성준 동문



그와 대화하다보면 경쾌하게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고 있는 듯하다. 달변이다. 논리가 정연하고 말에 힘이 있다. 막힘이 없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진성준 동문(53·법학 85학번)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단장으로 맹활약했다. 토론 과정에서 상대의 허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시청자들에게 쉽게 전달해줬다. 문재인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2015년 지금의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낼 때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문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공세에 처할 때마다 '비타협적 강경노선'을 주도하며 '호위무사'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상대를 설득하는 힘은 그의 순수성에서 나온다. 학창시절 진 동문은 문학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윤동주 시인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의 시 '별 헤는 밤'을 읽으며 문학가를 꿈꿨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5년 모교에 입학한 그는 광주항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리고 행동했다.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때부터 그의 뜨겁고 치열한 삶이 시작되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싶었다.

모교에서 법대 학생회장, 부총학생장을 지내며 전대협과 함께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군사정권 하에서 대학생활을 했다. 대학졸업 후 입대한 그

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무려 3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복역 후 장영달 전 의원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장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다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순수한 마음이 큰 과고를 만들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쳐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합참의장의 순환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안,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중점 관리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영창제도 개선 등 군 개혁과 군내 민주화에 대한 법안 등을 발의했다.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2013년), 2년 연속으로 소속당 국정감사 우수의원(2013~14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2014년)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상반기 의정 대상과 대한민국 인물 대상 의정활동 우수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 당선 후에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문대통령의 개헌안 마련을 주도했다.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두 차례 맡을 정도로 전략·기획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게 됐다. 서울시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펼쳐질 때마다 정부기관 및 여당과의 협의, 방송토론 출연 등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았다.

모교에 약대가 유치되는데도 한 축을 담당했던 진 동문은 "정치인은 모름지기 가슴이 뜨거워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슴 뜨거운 정치인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회봉사와 글로벌 활동을 통해 전문과 다양한 시각 접해보기를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원택 동문



광장과 잔디밭에서 민주주의와 독재 종식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황도현 대통령을 준비하기 위해 새끼를 꼬며 막걸리를 함께 마셨던 그 공동체가 그림습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동문(49·화학공학과 87학번)은 전북을 이끌 차세대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 김제 출신으로 남성고를 졸업했으며, 모교 재학 때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강골로 유명했다.

덕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년간 복역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특별사

면 및 복권된 바 있다.

이후 생활밀착형 시민운동가로 변신해 유연성을 잃지 않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삶속에 과고들었다.

그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시민행동 21'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면서 전주시 평화동 생태호수(지시제) 살리기 주민모임을 주도하면서부터.

당초 전주 도심을 막 벗어나 완주군 구이면으로 향하는 대로변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이곳 농업용 저수지는 관리소홀로 악취가 진동, 민원이 잇달았다. 그러자 이 동문이 나서 2003년 주민모임을 결성하고 타지역 벤치마킹과 EM(유용미생물균) 활용, 생태계조사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생태공간으로 되살려 놓았다.

이러한 활동은 2006년 자연스럽게 전주시의회 진출로 이어졌다. 2008년에는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삼고초

려 끝에 이 동문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고, 송 시장이 전북 도지사에 당선되자 도청으로 옮겨 도지사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을 역임했다.

대외협력국장 재직 시에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잼버리 유치 총괄 책임자로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을 앞세우고 대륙별 원정대를 구성,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 31개국을 돌며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이 동문의 치밀한 전략과 집념이 빛을 발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겨 전북의 현안을 챙겼다. 전북의 숙원 중 하나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굵직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지금은 정무부지사로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전북형 일자리 정착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혁신도시의 국제금융중심지 재추진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동문은 "민주화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국은 학업에 전념치 못하고 민주화 운동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전북대학교는 지금의 제가 성장해가는 산실이 되었고 가끔 대학교정을 걸을 때 곳곳에 서려있는 추억과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 시절 좀 더 다양한 봉사활동과 글로벌한 활동이 아쉽다"며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고 있는 대학구성원이 더욱 더 분발하시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봉사활동과 글로벌한 활동을 통해 전문과 다양한 시각을 접해 보기를 바란다."고 애정 담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부터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



우리대학이 올해부터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30년 숙원이었던 약학대학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특성화 된 제약(산업) 약사 양성을 위해 신약개발 전 주기를 이해하는 통합적 교육과 제약사와 협력을 통한 제약경영 융

합 교육, 그리고 바이오-제약의 창업과 경영 역량까지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동원 총장은 약학대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연구 중심의 약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대학생에 해외연수 지원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인 ‘파란사다리 사업’전북·제주권 주관 대학에 선정된 우리대학이 이에 참여할 학생 90명을 모집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개발과 진로개척에 꿈

과 열정을 지닌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정부(70%)와 주관대학(30%)이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해 해외 대학에서 4주 동안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대학 내에서 72명, 전북·제주 권역 타 대학 18명 등 총 90명을 모집키로 하고, 캐나다 센테니얼주립대학과 영국 울버햄튼 대학, 중국 상해대학, 필리핀 산호세 대학, 베트남 하노이대학 등에 파견한다.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최다 합격

우리대학이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전국 대학 가운데 3년 연속 최다·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인재등용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9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140명 중에서 전북대가 추천한 10명

(행정분야 6명, 기술분야 4명) 모두 최종 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

우리대학은 앞서 2017년 8명 전원 합격, 2018년 10명 전원 합격을 이뤄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선발 과정에서 윤태양 씨는 기술분야, 최하정 학생은 행정분야에서 1차 필기시험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창캠퍼스 지역 평생학습과정 개강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원장 김대진)은 고창캠퍼스에서 올해 교육 프로그램을 14개 과정으로 확대 개설하고, 앞으로 7개월간 건설기계운전, 약용식물자원활용지도사, 정원관리, 식품가공교육과 드론교육, 중국어회화, 심리상담 교육 등

을 한다. 또한, 문화예술 및 체육 과정인 라인댄스, 천연염색 디자인, 노래교실 강사양성, 붓길따라 마음여행, 커피바리스타, 소도구를 활용한 고효율운동, 우쿨렐레 음악지도사 과정 등도 함께 운영한다.

(주)비나텍 성도경 동문, 발전기금 5600만원 기탁



성도경 동문(공대 전자공학부 86년 졸업)이 5천600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기탁했다.

그는 전자공학과를 전공한 후 1999년 전주 팔복동에 (주)비나텍을 설립해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슈퍼 캐패시터 국내 점유율 99%를 차지할 만큼 탄탄한 전복 토종기업. 이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성 동문은 “우리 전자공학과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모교 역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

Solar energy Industry:

환경을 생각하는 글로벌 에너지 흐름인 친환경 그린에너지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부자는 친환경 그린에너지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및 투자를 실현하여 푸른 지구를 만들어 나갑니다.

태양광발전소 구축
약 26,804 kW

공사도급 진행
약 12,260 kW

자체 발전소 추진
약 42,713 kW

(주)우림 이앤에스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우림 W-city 810호

Tel. 031-606-4274 Fax. 031-606-4290

임대료 **12년 일시불 선지급!**

13년차 이후 **건물주 발전수익!**

12년 후 건물주가 운영(금융, 시공) / O&M 별도 계약

선투자 태양광 발전소 특징 및 장점

당사태양광발전의 특징

- **담보초과 건물 OK!**
- 부채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음
- **투자비용 없이 발전소 소유**
사업시행자 100% 자금조달 및 시공 12년간 임대수익 일시불 지급 건물주는 12년 후 발전소 소유
- **유지관리의 최소화**
별도계약을 통한 시행자 지속 관리 모듈 25년간 효율 보증 (모듈社)

솔라루프 설치의 장점

- **건물 단열효과**
모듈 설치로 인한 단열효과 여름철 내부온도 하강, 에너지 절감
- **지붕방향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
남/북방향, 동/서방향 모두 가능 지붕 밀착 설치 기술
- **판넬지붕 개보수 효과**
솔라루프 내화/방수 판넬로 기공공사 개보수비용 (1.5천만원/100평)절감

태양광 발전소 사업구조

사업 협의
건물주와 우림E&S간에 협의 한다.

건물점검
설치가능한 건물인지 기본적인 판단

발전 사업허가
SPC 명의로 발전허가 신청

발전소 운영
12년간 우림E&S가 운영하며, 건물주에게 임대료 납부

발전소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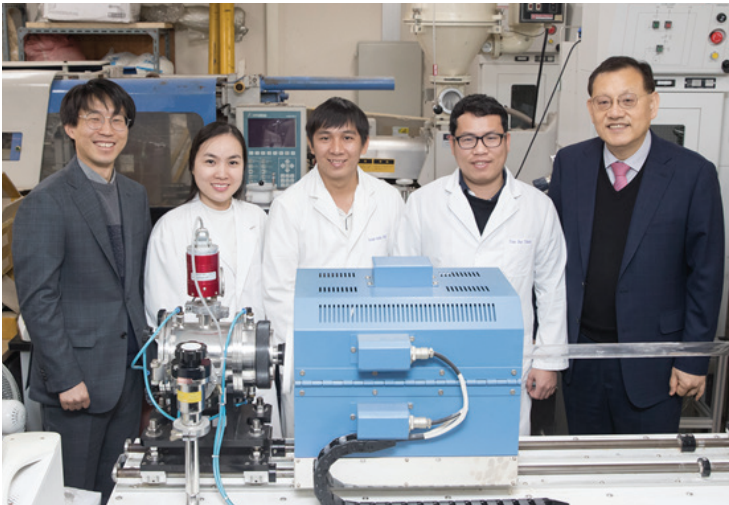
구조 안전 진단
구조검토를 통한 사업가능여부 최종판단

12년 후 건물주에게 사업권 양도.

사전검토 준비서류

- 건축구조물 도면(접합도면): 건물 축면도 (상세도면 설계시 필요, 미확보시 실측자료 첨부)
-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건축물 총괄표제부 (시군구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최근 3년간 재무현황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이중희 교수팀, 수소 고효율 촉매 개발



이중희 교수팀(BIN 융합공학과·대학원장)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소를 고효율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로 이중희 교수와 김남훈 교수팀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사회를 성큼 다가오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대학교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인 것이다.

이중희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로 미래 수소경제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기술인, 보다 저렴하면서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 아이디어 창업화 돕는다

우리대학이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학생 창업을 지원한다. 우리대학은 2012년부터 학생 창업 지원을 통해 69개 활동 팀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학생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창업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5월 말 ‘드림나래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창업동아리는 500~700만 원, 학생 창업기업은 1천만 원 이내의 시제품 개발비와 창업 공간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사업, 창업지원금 확보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대학이 올해 5억7천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확보했다.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아카데미와 멘토링 지원, 각종 포럼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험실 창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각종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실험실의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범대, 중등교사 임용 역대 최대 합격자 배출

우리대학이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역대 최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사범대학(학장 권인택)은 2019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88명(공립학교 160명, 사립학교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공립 유치원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7명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사범대학 총 입학 정원이 215명임을 고려할 때 대단히 높은 합격률이며, 중등교

사 임용시험의 경우는 지난해 합격자보다 12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전북권역에서는 192명(사범대 개설향과 기준)의 교사를 선발했는데 이 중 83명이 우리대학 졸업(예정)자였다. 이는 전북권역 전체 합격자의 43%를 넘어서는 높은 합격률이다. 우리대학은 교사원인 인재 등용관 내에 임용시험 준비반인 ‘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사업화 지원 (주)디딤돌 준공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의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디딤돌이 지난 4월 12일(금)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디딤돌은 공동

주택 등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장 건설을 위한 대지 5000평에 70억 원을 투자했다. 내년부터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학컨설팅센터,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선정

우리대학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2년간 20억 원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있는 기술 전문가와 기업의 1대 1 매칭을 통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에 나선다.

특히 기술사업화 지원과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우수한 R&D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센터장 송제호교수)와 협력 네트워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청년들이여 완주에서 당신의 젊음을 완주하라

창업·취업 지원 | 주거·생활안정지원 | 청년 참여·성장 지원

완주군 청년정책문의 063.290.3236

다함께 열어가는
은평도시 완주



동문 칼럼

인문학으로 행복하자

최영미 동창회 부회장 / 전주제일고 교장 (생활대 77학번)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 해 본 적이 있다. 이러한 물음들이 모여 ‘인문학’이 될 수 있다. 인문학을 진정 안다는 것은 일상 속 작은 물음에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인문학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언어·문학·예술·역사·철학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문학은 인간의 삶과 사고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다. 곧 인문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소통하며 공감한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고민한다. 그래서 인문학은 희망이고 행복이다.

필자가 전임지인 남원여고에서 학생들과 ‘발해만 요하기행’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여정을 찾아 글로벌 체험연수를 하였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지식과 삶이 일체가 된 지식인의 모습으로, 당대의 지식인과 위정자들이 가진 이율배반적인 행태와 당대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진솔하고 창조적인 시각의 삶을 표현하였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인문학적인 삶

의 표본이었고, 인문학 열풍의 진원지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우리 인문학은 고전, 문학,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삶의 전반적인 것에 깊숙이 관련이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인문학의 종류만 해도 길위의인문학, 도서관인문학, 여행인문학, 영화인문학등 인문학은 곧 우리의 삶이며, 꿈, 행복이다. 또한, 인문학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깨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한다. 관점을 바꿔 정의를 바꾸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잘 알려진 영국의 Purple Feather 사가 만든 홍보 동영상에서 눈 먼 거지가 ‘나는 장님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라고 팻말을 놓고 동냥을 하니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치다가 팻말의 문구를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수 없네요.’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단지 장님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이 더 행복 해 질수 있다.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고, 과학, 인문으로 탐구하다.’

요즘 필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섭형인문학의 슬로건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친해지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시대인 요즘 통섭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인문학교육은 청소년들이 미래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제 미래인문학은 통섭형 이어야 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인간을 넘어 친자연적이며, 도덕적이며, 지속가능 해야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네카강 수변공원의 잔디밭을 인간과 오리가 낮과 밤을 바꿔 서로 공존하며 사는 것은 행복한 미래의 이상적인 지구의 모습이다.

공자가 추구한 배움에 대한 관점등 선조들의 고전인문학 부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통섭형인문학 까지 삶 자체에 녹아있는 고민과 지혜로 당장 행복하고 오늘 행복하자.

‘알찬 대학, 따뜻한 동행’의 전북대학교 슬로건처럼, ‘모두가 행복한학교’를 부르짖는 전북교육처럼 우리는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해서 행복 하다.

인문학으로 행복하자.

인문학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동문 칼럼

그 은은한 이름, 이수금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상대 87학번)

1980년대 그 엄혹했던 시기와 우리 농민들이 사활을 걸고 우르과이라운드 반대 투쟁을 했던 90년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과 전국농민회의장을 맡으시면서 수배와 구속이 일상이었던 ‘이수금’이라는 분이 계셨다.

천생 농사꾼 ‘이수금’. 올해 추모 5주기를 맞이하는 이분은 전북대 동문도 아니다. 아마 중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으로 기억한다. 그런 분이 전북대학교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의 날 선 시간들을 품으셨다.

판옥선(板屋船)이라는 배가 있다. 왜적을 격퇴하기 위해 조선 명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판옥선은 배 위의 네 귀에 기둥을 세우고 갑판 지붕을 덮어 2층으로 된 높은 구조였다. 노를 젓는 병사는 아래층에, 공격을 담당하는 병사들은 위층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배 밑이 평평한 평저선이었다. 판옥선은 가시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 단단한 나무를 사용했지만, 먼 바다로 나가 오랫동안 항해하는 서양의 갤리온 같은 범선에 비해 항해 성능이 떨어진

다. 선체 구조는 높고 밑이 평평한 평저선이기 때문에, 바닥이 V자인 첨저선보다 속도가 느리고 대양에서 풍랑에 취약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판옥선이 임진왜란 때 백척간두의 조선반도를 지켜낸 최고의 전투선이었다. 선체가 높은 2층 구조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활을 쏘와포들을 제압하기 쉬웠고, 백병전을 노리는 왜의 수군이 기어오르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함포의 명중률을 높이는 데도 유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평저선인 판옥선은 방향 전환에 필요한 회전 반경이 짧아 선회력이 뛰어나고 대포를 쏠 때 반동 흡수에 매우 유리해 명중률이 높았다.

영화에서 웅장하게 등장하는 학익진 같은 진형을 구축하기 쉽고, 한쪽에서 발사할 때 다른 쪽에서는 장전한 후 빠르게 선회해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갯벌이 넓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조선반도의 연안에서는 신출귀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배와 구속 그리고 또다시 투쟁이 일상이었으

면서도 늘 논과 밭에 계셨던 천생 농사꾼 이수금 의장님. 언제부터인가 이수금 의장님에 대한 생각의 꼬트머리에는 판옥선이 그려지곤 했다. 조선반도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가는 판옥선단의 대장선. 그 대장선은 배 위의 수군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제 몸으로 화살과 총탄을 받아내며 싸웠을 것이다.

적들의 총탄이 사정없이 그 몸에 꽂혀도 입술 한번 깨물고 두 눈 질끈 감으며 내질러지는 비명을 삼켰을 것이다.

제 몸마저 침몰할 것 같은 고통과 시름 속에서도 전속력으로 돌진해 적선을 부수는 총각전술로 그가 품은 사람들의 사기를 올렸을 것이다. 그 판옥선단의 대장선 같은 이수금 의장님이 버티며 품고 지켜낸 이들이 우리였다.

평생 농사꾼 이수금 의장님을 추모한다.



세상의 빛
온누리안과병원

전북 유일 안과병원!

온누리안과병원

라식/라섹/스마일/ICL
백내장/녹내장/각막이식/망막

- 개인안과 유일 안(眼)은행 운영
- 개인안과 최다 각막이식 400례 시술
- 2016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
- 2014 국민추천 대통령 표창

전주

☎ 063. 277. 2774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25

©NNURI
SMILE OPHTHALMIC CLINIC

스마일 1mm절개 특허 획득!

온누리스마일안과

라식/라섹/스마일/ICL/백내장

- 국내 최초 스마일라식 논문 발표
- 타안과 불가능조건 고도난시 400안
- 국내 최다 스마일논문 발표
- 2017 의료소비자 만족도 1등급

☎ 02. 6913. 0000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5길 1

서울

제37대 전북대학교 동창회
임원회비 납부 현황

2019. 6. 10일 기준(단위: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회 장	이용규(500)		이용규(500)
고 문	백영기(10) 천광석(10) 오봉수(10) 이규하 평생고문회비(2010년도 납부)		천광석(10)
부회장	이용길(100) 국주영은(50) 강산길(100) 김동섭(100) 김영량(100) 김중훈(100) 김춘근(100) 남성태(100) 배진석(100) 송영석(100) 신창범(100) 심영섭(100) 심현섭(100) 원경의(100) 유태영(100) 이귀재(100) 이대갑(100) 이윤범(100) 이진일(100) 전의현(100) 전이현(100) 정영택(100) 조화립(100) 최영미(100) 황승수(100)		김현진(100) 유재도(100) 이진일(100) 정경희(100) 장지영(100)
단대회장	김현욱(간호대 25) 정태두(공 대 25) 이규완(농생대 25) 한석우(사범대 25) 조춘신(상 대 25) 엄효순(생활대 25) 박택훈(수의대 25) 도병룡(의 대 25) 김봉섭(인문대 25) 이정직(치 대 25) 박종길(한생대 25)		
대학원회장	김재수(경영 15) 임한필(교육 15) 김형희(산업보건 15)		
지역회장	이용재(재경 15) 박용근(장수 15)		
상임이사	간호대	김숙자(15) 최순기(15) 김도신(15)	
	공 대	강문수(15) 윤재봉(15) 임일빈(15)	강문수(15) 윤재봉(15)
	농생대	곽춘욱(15)	
	법 대	정성필(15)	
	사범대	조현정(15)	
	사회대	백강현(15)	
	상 대	황방원(15) 유은석(15) 윤재현(15) 박한수(15)	
	생활대	라상숙(15)	
	수의대	박 훈(15) 설재원(15) 이성효(15) 이한경(15) 장정석(15) 최춘기(15)	
	예술대	김정하(15) 이일순(15) 조재상(15)	
	의 대	윤육희(15) 조병춘(15)	
	인문대	김인로(15) 최영준(15)	
	자연대	김철주(15) 박광진(15) 소준노(15)	
	치 대	최동주(10) 장용진(10) 김미자(10) 최순정(10) 김현철(15) 이용근(15)	
	한생대	이성식(15) 박상문(15) 김홍국(15)	
감사	김정애(15) 김용현(15)		

찬조금 및 기부금 내역

(2018.04.01 ~ 2019.03.31)

(단위:만원)

■ 찬조금

- 이용규(회계 81/88) 1,900
- 박두혁(정밀설계85/92) 5
- 에스원(보안업체 결연) 27,700원

■ 상품 찬조 및 찬조금(골프 대회)

- ㈜성전건설 대표이사 이용규 (총동창회장) 300
- ㈜진모터스 대표이사 이용길(수석부회장) 1,000 / 골프백3개
-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ACE) 총동문회 150
- IBK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 서치길 200
- 전북은행 전북대학교 동문회 100
-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정대영 100
- 온누리안과 병원 100
- 김양박 이비인후과 김영기 100
- 미림회계법인 대표회계사 최영렬 100
- ㈜금성 광에너지 대표이사 오동진 100
- 이대감회계사무소 회계사 이대갑 100
- (유)한백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진일 100
- 푸른안과 원장 유태영 100
- ㈜동성 대표이사 송영석 100
- 재경지역동문회 회장 이용재 100
-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유재도 100
- ㈜성실섬유 대표 정태두 100
- 호원건설㈜ 대표이사 이윤범 50
- 미림회계법인 회계사 엄상섭 50
- 전북대학교 장기발전위원회 50
- 남원시장 이환주 쌀 1kg 300개
- 군장에너지㈜ 대표이사 박준영 글라스락 240세트
- 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장 김현식 햄세트 10개
- 전북대 발전지원부 와인 10병
- 오비 맥주㈜ 전북지점장 진준섭 맥주 240병
- 로시니/와인지움 대표 박형민 상품권(30만원)
- 골프존 파크 송천에코시티점 김정희 무료라운딩권 50매/2+1라운딩권 50매
- 솔소리(황진이) 대표 양석호 60병
-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장근 한우갈비세트 2개

■ 연회비 납부자 (2만원, 가나다순)

(2018.05.29 ~ 2019.06.10)

- 고귀영(이리농림/65)
- 권정주(경영68/72)
- 김낙완(사학68/72)
- 김부철(의학88/95)
- 김재병(농학58/63)
- 김희곤
- 김희중(산업기술대학원00/02)
- 류재철(농학52/56)
- 백홍길(섬유공학63/70)
- 송광석(상학59/65)
- 송자규(산업기술대학원98/01)
- 신하룡(농학57/61)
- 양길영(무역67/73)
- 원찬희(측지환경77/81)
- 유춘희(토목공학75/82)
- 윤영구(섬유공학74/81)
- 이강룡(임학67/74)
- 이병두(화학76/80)
- 이보원(경영81/88)
- 이윤재(경영72/79)

- 이화권(수의57/61)
- 임진홍(토목공학85/89)
- 전상숙(법학55/60)
- 전태문(수의71/75)
- 정유화
- 홍규식(경제72/79)

■ 평생회비 납부자 (10만원, 가나다순)

(2018.05.29 ~ 2019.06.10)

- 김성조(농화학66/70)
- 김인석(전기공학55/61)
- 김흥기(대학원 토목공학00/03)
- 류경화(치의학87/93)
- 박성현(의학94/00)
- 박승우(기계공학76/82)
- 박인순(의학77/83)
- 박종현
- 박홍섭(전기공학82/89)
- 박홍용(금속공학79/86)
- 송원례(의학86/92)
- 심규서(토목공학77/84)
- 심영만(임학69/73)
- 이기준(농공학82/89)
- 이상곤(전자계산94/96)
- 이상호(섬유공학70/74)
- 이정직(치의학82/88)
- 정규조(기계공학64/67)
- 정태한(산업기술대학원04/07)
- 최석식(법학73/77)
- 최태호(에이스 최고위2기)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 협력사 엔노블이
동문 및 가족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557)

대한민국 No.1 노블레스 결혼정보
결혼엔 엔노블입니다!

22 명문대동창회 제휴 | 46 관공대기업 제휴 | 2,789 전문직 종사자 | 501 100억대 이상 자산가

High-class Society
Matchmaking Agency

엔 노 블
결 혼 정 보 회 사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11(신사동, 엔노블 B/D) 부산지사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 211호(우동, 트럼프월드센터)
해외지사 | New York 718-487-9751 L.A 213-342-8566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 강남-국내-15-0005

대표상담전화
1577-2050
www.ennoble.co.kr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 엔노블 결혼정보
결혼정보 서비스 협약식
2019. 3. 27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 서비스 제휴(2019년 3월)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19 - 다 - 244호
(유효기간 : 2019. 12. 31 까지)

고마워요 50년 함께해요 100년!

지난 50년,
고객님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며
고객님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